

TDB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6년 12월 조사 -

2017년 1월 11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국내경기는 폭넓게 개선, 상승세가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의 동향이 좌우 ~

(조사대상 2만 3,804사, 유효회답 1만 33사, 회답율 42.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12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1.3포인트 증가한 45.4가 되어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자동차생산이 지속적으로 호조였으며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하였다.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착공호수의 증가 등도 호재였다. 국내경기는 내외 수요가 견조하였으며 연말을 맞아 소비가 활성화되어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일부 우려요소가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세 증세 전 막바지수요가 왕성하였던 2013년 12월 이래로 3년 만에 10개 업계 모두가 개선되었다. 연말수요 및 견조하였던 외수와 함께 원유가격이나 강재가격의 상승에 대비한 수요증가가 경기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제조업 등에서는 설비투자동향을 체감하고 있다는 코멘트도 보였다.
- 『훗카이도』나 『토카이』 『쥬고쿠』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가 악화되었다. 지역 내의 주력산업·기업의 호조가 관련업종·기업에 파급되는 움직임이 보여진 이외에 역전(驛前)개발이나 공공투자 등도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지역에 따라 규모 별 개선에 차이가 나타났다.



< 2016년 12월의 동향 : 상황세 >

2016년 1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45.4가 되어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것은 7개월에 걸쳐 개선이 지속되었던 2014년 1월 이래 2년 11월 만이다.

12월의 국내경기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맞아 소비가 견조하였으며,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중국 등 신흥국·자원국경제의 불투명성이 일부에서 누그러진 점이 영향을 미쳐,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된 점도 호재로 되었다. 또한 자동차생산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이외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착공호수의 증가, 도쿄올림픽이나 인바운드 수요에 대비한 숙박시설의 리뉴얼·신규건축 등도 플러스요인이 되었다. 한편 가솔린·경유 등 연료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코스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견조한 내수수요에 연말소비의 수요증가가 더해져 상황세가 지속되었다.

< 향후 전망 : 완전한 회복이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의 동향에 좌우된다. 임금상승이 전망되는 이외에 근로방식개혁이나 일억총활약(一億総活躍)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이 예상되는 점은 호재로 될 것이다. 동시에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지속은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트럼프노믹스의 움직임 외에도 12월에 실시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금리인상, 원유 등 연료가격의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코스트부담의 상승 등 우려요소는 존재하지만 향후의 경기는 완전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